



농협 고창군지부, 교육지원청과 쌀 소비촉진 협약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고창 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23일 고창 교육지원청에서 쌀 소비촉진 업무협약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NH농협 고창군지부 이미정 지부장, 고창 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과 양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NH농협 고창군지부는 고창군 농업인들이 생산한 홍보용 쌀과 떡을 전달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고창군 교육청과 농협이 손잡고 학교급식과 각종 행사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고창 쌀과 가공제품을 적극 사용하고 지역 쌀 소비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유승오 교육장은 "고창군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와 스마트스쿨 사업 등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임직원들과 관내 학생들에게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함께 농협의 쌀 소비촉진 운동에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정 지부장은 "고창군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혁신적인 교육행정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균형적인 성장과 고창군에서 생산된 쌀의 안정적인 소비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쌀 소비촉진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고 농협도 관내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으로 교육청과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정식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성희롱·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시제와 근절방법 등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날로 늘고 있는 다양하고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이병희 지부장은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의 주 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는 2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의 종사자(생활지원사)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역량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정을 도모하고 심리와 정서지원 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회복력을 지지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생활교육,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로 올 한 해 남원시는 200명의 생활지원사가 3,050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총합한 노인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임점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최근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지니어워즈' 수상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지역 신산업 혁신기업 발굴·육성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23일 개막한 '제5회 지니포럼(GENIE Forum)'에서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니포럼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포럼으로 매년 전주에서 개최되며, 지니어워즈는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금융·경제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역대 지니어워즈 수상자는 ('23) 로빈 빈스 BNY멜론 CEO, ('22)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21) 구자열 LS 회장 ('20) 오바바 재단이 수상했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지역 신산업 혁신기업의 발굴·육성 및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니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산업은행은 지역 신산업 육성 및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양 기관은 공동으로 지역 혁신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을 모았다.

또한, 산업은행은 지역 혁신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플랫폼인 '넥스트 라운드'를 활용하여 전북민을 위한 스페셜 라운드를 개최,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화하고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강석훈 회장은 "제5회 전북 지니어워즈에서 지니어워즈를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산업은행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만호 기자



전주교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참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한국교육대학교 차우규 총장의 지목을 받아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23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최근 불법 온라인 게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SNS를 통해 사이버 도박을 쉽게 경험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당 챌린지는 이런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박병춘 총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광주교육대학교 허승준 총장을 지목하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18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강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부터 지목을 받은 추영곤 교육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사이트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라는 피켓을 들고 사이버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라고 강조했다."

추영곤 교육장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추영곤 교육장은 다음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참여자로 장수경찰서 김홍훈 서장과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 이상수 회장을 지목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도통동, 쓰임 사회협동조합과 협약 체결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23일, 쓰임 사회협동조합(대표 변수봉)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서는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분행정 가정방문 시, 취약계층의 가정의 오래되어 사용이 불편한 가구를 업무이름칭에 지원하고 정리 정돈도 지원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계획이다.

변수봉 대표는 "가구 지원이라는 작은 도움이 도통동민에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도통동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한 '쓰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관련된 유익



한 사업을 발굴해 동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2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개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회장 한태상)가 23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일품공원에서 2024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가족 한마음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준석 순창군의 회 의장, 순창군의 의회, 지역 기관장과 농업경영인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이우철 전 순창농협 인계지점점장의 성공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최영일 군수의 특강, 포항제 수어,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영일 군수가 직접 특강자로 나서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주목받았다.

최 군수는 특강에서 "순창군은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지원, 농가소득 기반 지원, 생산경비 절감 등을

목표로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년과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대형 농기계 보조사업 추진 등 영농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일품 공원에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읍면별 1개 팀이 참여한 장기지랑과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후계농업인들은 서로 소통하며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순창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는 자주적인 협동체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대강면 지사협, 독거 어르신 집 대청소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 권기환)와 행복협의회(위원장 권기환)는 23일 관내 독거 어르신 집을 대청소했다.

사업은 협의체 특화사업이며 "대강 가이비 출동 집청소 사업"의 일환으로 이혼 후 오랜 우울증으로 저장장바 형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협의체 위원이 발굴해 개입하게 된 사례이다.

권기환 위원장은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는 말처럼 양 단체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중표 면장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강면민에게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간담회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지난 21일, 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5세대 11명을 대상으로 2024년 다문화가족행복플러스사업 '찾아가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 가족지원센터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 부부, 부모-자녀 또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행복한 정리의 기적'을 주제로 정리 수납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실습과 병행한 교육이 진행됐다.

김차남 동장은 "관내 다문화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학생중심 성장리더 특강'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2일 학생회관 이영노홀에서 2024학년도 학생중심 성장리더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학부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의 역할'을 주제로 전북교육인권센터 최성민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특강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안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운영 현황 및 실제 대응 사례, 피해교원의 조속한 치유와 교육 현장으로의 회복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박병춘 총장은 "교사로서 사회 진출의 꿈을 가진 예비 교원들이 높은 인권 감수성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조화롭게 교권 보호의 경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참스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동참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업인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농촌에서의 일상적인 안전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캠페인은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업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특히 생활개선회와 4-H 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농작업 전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캠페인은 농작업에 적합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리는 동영상으로 제작됐으며, 해당 영상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정읍se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속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나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친근하게 전달하고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은 안전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작업별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